



덩샤오핑 평전 벤저민 양 지음 권기대 옮김 황금가지 펴냄 1만6천2백원

덩샤오핑이 없었다면 중국은?



1989년 6월 9일 북경에서 열린 인민 해방군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는 덩샤오핑.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해는 중국의 지도자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탄생 100주년이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굳이 자서전을 쓰려 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기를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훌륭한 전기는 당사자가 생전에 했던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전기를 갖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가 살았을 때만 해도 그의 전기가 수십 편 쓰였고, 심지어는 그의 딸까지도 펴냈다. 사실 전기 작가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도 드물었을 것이다. 혁명과 내전, 권력투쟁의 혼돈 속에서 불사신처럼 살아남아 끝내는 절대권력의 권좌에 등극했으니 말이다.

#중국을 세계 제 2의 대국으로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책은 미국에서 활동한 중국인 학자 벤저민 양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업적과 과오를 냉정하게 서술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산 혁명, 항일 전쟁, 문화 대혁명, 6·4 천안문 사태에 이르기까지 격동하는 중국 현대사의 최전선에서 세계 제 2의 대국을 이끌어 온 덩샤오핑을 진지하게 분석한다. 또한 탁월한 정치력과 특유의 신념으로 그가 중국에 무엇을 남겼으며, 오늘날 중국은 그의 유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덩샤오핑은 1904년 쓰촨 성 공안 현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1920년 열여섯 살의 나이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대전 후 공황에 시달리던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공장 노동자가 된 덩샤오핑은 중국공산청년동맹 프랑스 지부에 가입하고, 훗날 혁명의 동지이자 경쟁자가 되는 '저우언라이(周恩來)', '리리싼(李立三)', '차이리현(蔡和森)' 등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든다.

#철저한 실용주의와 비상한 정치 감각

마오쩌둥의 충성스런 지지자였던 덩샤오핑이었지만,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 3천만 명이 굶어죽는 참상을 보고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유명한 말로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다. 이때부터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의 눈 밖에 난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 당시 마오의 추종자들에게 '주자파(資派, 자본주의로 불리는 자)'라고 비판당하며 여러 번 숙청의 위기에 몰렸다. 공식 지위를 박탈당하고 트랙터 공장

으로 쫓겨나는가 하면, 1976년 4인방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자택에 연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군부들 등에 업은 화궈펑(華國鋒) 세력의 도움으로 복귀하였고, 그로부터 당 중앙 부주석, 국무원 제 1부총리, 군사위원회 부주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모든 지위를 찾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모두가 덩샤오핑이 마오의 뒤를 이어 국가 주석에 오르리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거부하고 한 계단 아래에서 실력을 행사했다.

#중국인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지도자

군인 출신 거물이 즐비한 중국 공산당에서 문관 출신 덩샤오핑이 최후의 승자가 된 비결은 바로 철저한 실용주의와 비상한 정치 감각에 있었다.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제 권력에 집중된 덩샤오핑은 언제든지 자기 세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도록 하거나 것은 당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면모

였다. 당시 동유럽 공산 정권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결의가 그러한 참극을 불렀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 외국 정부의 몰락하는 비난에도 눈썹 하나 까딱 없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들은 조만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덩에게 돌아온 것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덩샤오핑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낸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마오쩌둥이지만 가장 고마워하는 지도자는 덩샤오핑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이야말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되찾아준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그의 여러 과오나 독재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칭송한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엔 그가 있다

오늘의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의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흡사 1970년대 한국의 유신 체제를 연상시킬 만큼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덩샤오

핑이 천명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주껏 이용하라"라는 외교 지침이 지금껏 중국 정부가 보여 주는 강경 노선의 핵심이다. 저자는 "향후 중국에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 인물은 내치가 아니라 외교 드라마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 현재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빛을 낸 모양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읽기 위해서는 덩샤오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없는 웃이 단 한 발도 없었던 겸약정신엔 숙연함마저

특히 수많은 업적중에서도 덩샤오핑이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겸약 정신이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와 딸들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웃이 단 한 발도 없음을 보고 꼭 놓아 올랐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수감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가 정말 숙여지는 대목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박종호 지음 | 시공사 펴냄 | 1만4천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소문난 클래식 애호가 중 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LP음반 컬렉션을 시작했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해마다 음악제가 열리는 곳이라면 베네치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보덴 호숫가까지 어디든지 찾아다닌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음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저자는 마침내 천직으로 삼아온 의사에서 클래식 레코딩 전문점인 '풍월당'의 주인으로 인생의 제 2막을 맞게 되었다.

풍월당은 개점한 지 1년 만에 각종 음악 잡지에 음반 판매량이 게재되고 백건우와 호보로스토프스키, 이안 보스트리치 등 대가들의 사인회를 열 정도로 클래식 음악과 관련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자신의 인생 지도까지 바꾼 음악 사랑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냈다.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은 명반을 소개하거나 클래식을 듣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교과서적인 입문서가 아니다. 저자만의 감흥으로 읽어낸 음악 이야기가 전주처럼 흐르고 초심자들을 좀 더 음악에 몰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는 쉽게 풀어 썼다.

클래식이 있어 아름다운 인생

레코드점 사장으로 변신한 전직 의사의 음악 사랑

그래서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매력적인 선율에 마음을 빼앗겨본 적이 있는 이들이라면 '무슨 음악을, 누구의 연주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흥겨운 마음으로 이 추억의 음반 편력기를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불멸의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일궈낸 위대한 예술 세계를 통해 삶의 진정성과 마주할 수 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불우한 장애를 타고난 바리톤 크바스토프가 부르는 '겨울 여행'과 42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쿠벨리크가 지휘한 '스메타나' 공연 실황의 감동을 전하는 글 속에서는 절망과 환희가 교차하는 삶의 근원적인 비애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분히 음악 호사가의 주관적 느낌인데, 음악사에 관한 정보를 집어넣어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다. 저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레퍼토리별 명연주 소개에서는 '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름, 싱그러움과 낭만을 위하여' 등 계절에 따라 4개장으로 나왔다.

계절별 구분은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어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곡목별로 골라 읽을 수 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안드라스 시프' '비발디의 사계- 파비오 비온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백건우' 식이다. 곡 이름과 연주를 병치한 구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선곡에서 그의 취향과 관심이 쉬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나만의 추천음반'에서는 본문에 언급된 100여 개의 음반을 모두 소개했다. 특히 이 음반들은 LP 판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CD들이어서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반가운 정보이다. 또한 재킷 사진을 올림프로 실어 음반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더했으며, 리뷰는 음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음반을 제대로 고르는 데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허만 (수원대 피아노과 강사)

마하몰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이젠 지갑 속에 넣어 다니세요!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합니다.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19,800원
· 순금카드(골드파우더)+열쇠고리+휴대폰걸이

붓다열쇠고리 5,000원
붓다핸드폰걸이 3,000원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88,000원
· 재질: FINE GOLD 99.9%
· 골드파우더카드: 15,000원
· 중형금(1번)카드: 120,000원
· 색상: 검정, 녹색

산호합장주 16,000원
도실나한합장주 20,000원

연실합장주 6,000원
살아있는 씨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중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 정도 잘라 떼어 담귀두면 발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재질: 연실(연꽃씨앗) · 사이즈: 18mm*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연드레인향만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연실열쇠고리 12,000원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아심경 반지

반아심경 순반지 - 반아심경 천문270자가 각인된 순반지
· 14K: 245,000원 · 14K: 245,000원 · 18K: 352,000원 (외부/내부) · 18K: 352,000원 (내부/외부)

반아심경 은반지 38,500원
· 은 92.5% 로듐도금 · 크기: 폭 약 8mm

반아심경 목걸이(원형사리) 48,000원
· 가로 18mm, 세로 33mm · 재료: Silver 92.5%

반아심경 펜던트 Gold 14K: 245,000원
· 14K: 245,000원 · 18K: 352,000원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15,000원 → 13,500원
· 실력 발휘 -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쉽다도 기쁘게 패스!
· 집중력 향상 - 잠재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사고 - 마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솟습니다.

소원성취 합장초 샘플형(소3개,대2개) 17,000원
· 소(소)20개입: 60,000원 · 대(대)20개입: 100,000원

갯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 은(99.9%)이상 17,000원
· 직경: 40.0±0.1mm · 표면처리: 무광 프루프 · 제품구성: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모닝스타(천연아로마향) 6,500원
건설향(지관단) 15,000원

희망석 방석 190,000원 → 178,200원
· 희망석 방석 구매시 희망석 지킴이(20,000원)를 드립니다.

희망석 방석 360,000원 → 298,000원
· 희망석 좌복 구매시 희망석 머리핀(44,000원)을 드립니다.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 신한, LG, BC카드도 5만원 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BC카드: 2개월 무이자할부(2004. 9. 30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선임자원이 후원하는 "eTrust 인증제도" 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문물 부문)로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 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